

『독서』 단원 워크북



수민이는 화살이 되었고
서희는 곤장 활시위를 당겼다.
나연이는 기꺼이 과녁의 자리에 섰다.
내게도 선택의 순간이 왔다...

초등학교

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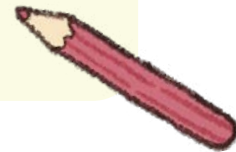
반

이름



읽기 전 활동

1. 표지 살펴보기
2. 인물의 관계 짐작하기
3. 작가의 말 살펴보기
4. 삽화를 보며 이야기 상상하기



읽기 중 활동

1. 나의 롤 모델 떠올리기
2. 내가 등장인물이라고 생각해 보기
3.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급 규칙 만들기
4. 성찰하고 다짐하기
5. 사과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읽기 후 활동

1. 줄거리 간추리기, 4컷 만화 그리기
2.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역할극으로 표현하기
3. 독서 골든벨 퀴즈 만들기
4. 책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 표현하기





1 표지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표지를 보고 다음 표를 채워 봅시다.

제목		그린이	
글쓴이		출판사	

2. 표지를 보고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 예시) 교실이 정글로 표현된 이유는 뭘까?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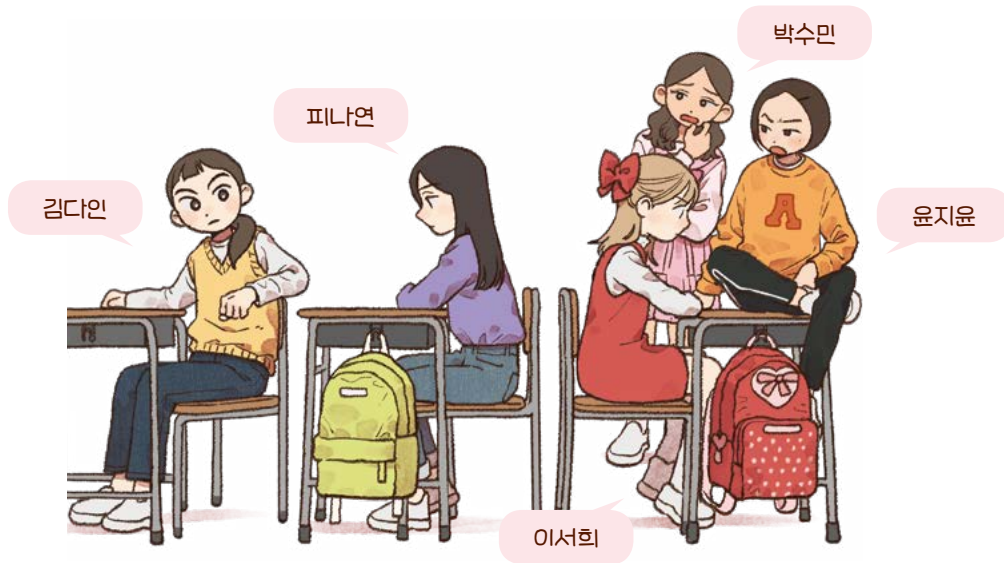
.....

🐾

.....



1 책 표지에 나타난 등장인물을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을 찾아 써 봅시다.



예시) 나연이와 서희는 서로 뒤돌아 앉아 있다.

.....

.....

.....

.....

2 등장인물의 MBTI를 짐작해 봅시다.

등장인물	MBTI	그렇게 생각한 이유
다인		
나연		
서희		
수민		
지윤		

3 나와 MBTI가 같아 보이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



1 '작가의 말'을 읽고 글의 주제를 짐작해 봅시다.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 땐...

여러분은 학교 폭력을 보거나 겪은 적이 있나요? 하루 종일 한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서로 싫은 감정이 들기도 하고 투닥거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럿이 함께 지내다 갈등이 생기는 건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몰라요. 다만 문제를 건강하게 풀어 간다면요.

우리는 교실에서 관계를 맺고 의사 소통을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관계 맺음과 의사 소통, 갈등 해소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특히나 고학년 교실에서는 권력 구조가 매우 뚜렷하지요. 누군가 잘못된 리더십으로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상황을 겪어 본 적 있나요?

성씨와 외모가 놀림감이 되는 경우는 아주 허다하지요. 때로는 별다른 이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 혹시 보고도 못 본 척 침묵하지는 않았나요? 친구가 힘들어하는 것을 뻔히 보고도 입을 다문 채 외면하고, 그러다 무뎠어지기까지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괴롭힘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못 본 척하며 뒤돌아 서 있지 않을까요?

이 동화의 몇 장면은 제가 실제로 겪은 일들과 몹시 닮아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비슷한 상황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때 어떻게 했는지 곰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요.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용기 내서 도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잘못된 일을 보았을 때 그저 멀뚱히 바라보지만 말고 당당히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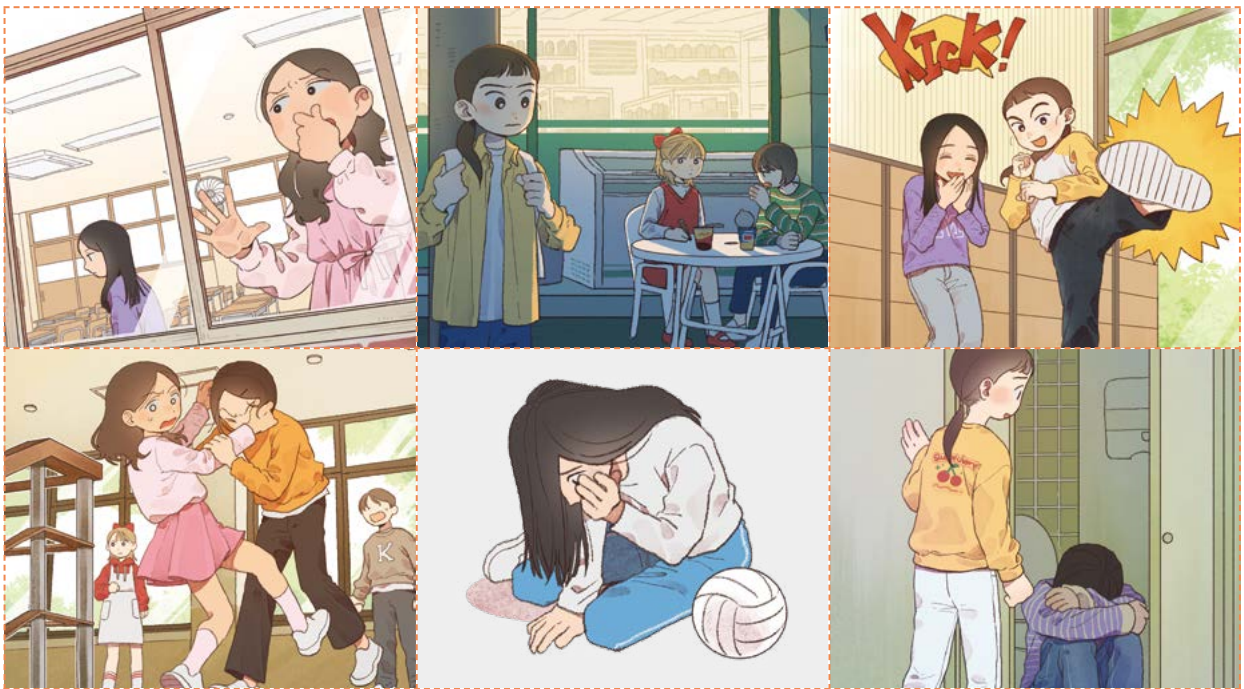
🐾 내가 짐작하는 《정글 인 더 스쿨》의 주제는?





1 삽화를 자유롭게 배치하여 어떤 이야기일지 상상해 봅시다.

#1	#2	#3
#4	#5	#6



* 절단선에 맞춰 삽화를 자른 다음, 위의 칸에 붙여서 흐름을 유추해 보세요.

**1** 책의 첫 부분입니다. 물음에 답해 보세요.

전학 온 지 일주일이지났다. 처음엔 전학생이라서 주목을 받을까 봐 걱정했다. 다행히도 새 학년이 시작되는 날이라 그런지, 새로 입주하기 시작한 아파트 단지 덕분인지, 나는 꽤 많은 전학생들 틈에 섞여 특별히 주목을 받지 않았다. 내가 배정받은 반은 6학년 1반이다. 한 반에 스물일곱 명.

학생 수가 많아서 묻혀 살기 딱 좋았다.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것도 좋았다. 그 누구도 나를 신경 쓰지 않고 관심 가져 주지 않길 바랐다. 지금까지는 꽤 성공적이었다.

1. 다인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나요?

2 다인이는 왜 나연이를 ‘롤 모델’로 정했나요?

*롤 모델은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대상을 말해요.

3 여러분에게도 ‘롤 모델’이 있나요? 나의 롤 모델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롤 모델로 정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1. 나의 롤 모델은 누구인가요?

2. 롤 모델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1** '화살과 과녁' 중 일부입니다. 내가 다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좀 이상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중략)

서희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교실에 이상한 냄새가 번졌다. 서희의 시선이 머문 곳에 다른 아이들의 시선도 함께 멈췄다. 바로 피나연의 자리였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역시 수민이었다. 피나연이 앉아 있는 자리 쪽으로 가서 창문을 활짝 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애들이 하는 행동만 보면 정말 교실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다. 아니, 실제로는 남자애들의 땀 냄새였을 수도, 아니면 으레 교실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냄새는 피나연에게 나는 냄새로 순식간에 둔갑을 하고 말았다.

피나연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표정의 미세한 변화조차 없었다.

‘그래, 반응하지 않으면 애들이 금세 흥미를 잃을지도 몰라.’

나 역시 최선을 다해 이 분위기를 견디기로 했다. 내가 나선다고 달라질 것도 없겠지만.

내가 다인이라면…

2 '천방지축마골피' 중 일부입니다. 내가 다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만해.”

눈빛이 서늘했다. 이런 눈빛은 처음 보았다. 도와줘서, 편을 들어줘서 고맙다는 것도 아니고, 친하게 지내자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 (중략)

나는 그냥 나연이를 돕고 싶었던 건데, 정작 나연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보다. 너무나 혼란스러웠다.

‘애초에 나서서 게 아니었을까? 상관하지 말라는 게 나연이의 진심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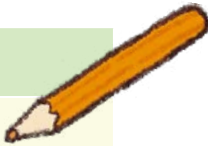
내가 다인이라면…



- 1** '교실 속의 외딴섬'에는 학교 폭력 상황이 나옵니다. 누군가 나연이의 신발에 구정물을 넣어 신지 못하게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보고도 침묵합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우리 반 규칙을 함께 정해 봅시다.

1. 개인별로 생각하기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예시) 힘든 친구 위로해 주기	예시) 친구 물건 함부로 가져가기



2. 모둠별로 의견 모으기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3. 학급 규칙 정하기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1 학교 폭력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되돌아봅시다.

행동	동그라미 하세요
나는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도와준 적이 있다.	예 / 아니오
나는 친구에게 욕이나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	예 / 아니오
나는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지 않는다.	예 / 아니오
나는 화가 나도 친구를 때리지 않는다.	예 / 아니오
나는 문자나 채팅으로 친구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	예 / 아니오
나는 친구의 사진을 인터넷에 허락 없이 올리지 않는다.	예 / 아니오
나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	예 / 아니오
나는 친구를 따돌리지 않는다.	예 / 아니오

2 '뺨에 걸린 사냥감'에서 다인리와 나연이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친구가 됩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어 보아요.

🐾 나의 다짐 🐾

나 ()은/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

.....

.....

.....

.....

다짐합니다.

.....



1 만약 내가 잘못을 했다면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사과 방법에 대해 모둠끼리 토의를 해 봅시다.

말로 사과할 때	
사과를 받아 줄 때	
사과를 안 받아 줄 때	

2 다음과 같은 학교 폭력 상황에서 어떻게 사과를 하면 좋을지 연습해 봅시다.

장면 1	장면 2
<p>“××년아, 그만 갑죽거려.”</p> <p>지윤이 입에서 욕이 쏟아지는가 싶더니, 그대로 수민이의 휴대폰을 손으로 내리쳤다. 곧이어 휴대폰이 바닥에 나뿔꺾었다.</p> <p>그 순간, 나는 왜 서희의 표정을 살폈는지 잘 모르겠다. 서희는 그 모습을 보고 씩 웃었다. 소름이 훅 끼쳤다.</p> <p>“××.”</p> <p>악에 받친 욕설과 함께 수민이가 지윤이의 머리채를 잡았다. 순식간에 몸싸움으로 번졌다. 그러다 중심을 잃은 수민이가 뒤쪽에 있는 계단으로 구르고 말았다.</p>	<p>쉬는 시간에 쪽지가 돌기 시작했다. 그 쪽지는 나와 나연이에게까지 전해졌다. 누가 봐도 못생긴 여자애의 얼굴 그림 밑에 지민이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같은 글씨체로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다.</p> <p>머리 떡짐. 도대체 언제 감은 거야? 옷이 저것밖에 없나? 맨날 똑같은 옷! 음, 입 냄새는 또 어쩔…….</p>
〈수민/지윤이가 되어 사과하기〉	〈서희가 되어 사과하기〉



1 《정글 인 더 스쿨》의 줄거리를 간추려 적어 봅시다.

2 위에서 간추린 내용을 4컷 만화로 그려 봅시다.



1 책의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떠올려 적어 봅시다.

2 역할극을 준비해 봅시다.

- 가. 모둠원과 위의 인상 깊은 장면을 공유하고 역할극으로 만들고 싶은 장면 정하기
- 나. 표현하고 싶은 장면의 대본 짜기(변형 가능)
- 다.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발표하기
- 라. 질문 주고받기



3 역할극을 평가해 봅시다.

1. 자기 모둠 평가

인상 깊은 장면을 실감 나게 표현했나요?	☆☆☆☆☆
친구들과 협력하여 역할극을 준비하고 발표에 적극 참여했나요?	☆☆☆☆☆

2. 다른 모둠 평가

인상 깊은 장면을 실감 나게 표현했나요?	☆☆☆☆☆
발표에 적극 참여했나요?	☆☆☆☆☆



1 책을 읽고, 독서 골든벨 퀴즈를 만들어 봅시다.

문제 번호	문제	답
예시	책에서 서희를 어떤 동물에 빗대어 표현했나요?	사자
1		
2		
3		
4		
5		
6		
7		
8		
9		
10		





1 다음 중 하고 싶은 것을 골라 활동해 봅시다.

①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

② 작가에게 편지 쓰기

③ 이야기 바꾸어 쓰기

④ 뒷 이야기 이어 쓰기

⑤ 독후화 그리기 또는 만화로 나타내기

Blank area for student activity.